

설 가정 예배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28장(통28장) 다 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 - 아멘

기 도 가족중에서
성경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가족중에서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설 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설 교 자

오늘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원하심은, 설 명절로 모인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포도나무가 누구를 비유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자들(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 머물러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머무른다는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따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마22:37).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내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가까운 혈육으로 맺어주신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입니다.

가정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누릴 때 담장을 넘어 그 축복이 교회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38장(통364장) 다 같 이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 기 도 다 같 이
식사기도 가족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동부교회